

전주매일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음 7월 29일) 제236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실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도의 초청으로 28일 도청을 방문한 하임 호센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함께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 및 이스라엘 혁신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도내 벤처산업의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혁신기관 협력관계 구축 방안 논의

하임 호센 주한 이스라엘 대사, 전북도 방문

새만금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에 기업투자 관심
송하진 지사 “재생에너지·바이오 기업 투자유치” 요청
호센 대사 “농생명·새만금 스타트업 교류협력 기대”

하임 호센(Chaim Choshen)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28일 전북도를 공식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와 회담을 나누고 관심이 집중됐다. 호센 대사의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 혁신기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전북도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호센 대사가 2016년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 부임한 이후 전북을 찾은 것은 2018년 부안 오복마실 축제에 이어 두 번째로, 송하진 도지사와의 지난 7월 15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의 청와대 내방 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것이 인연이 돼 이번 방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양국의 상호 교류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진 도지사와 호센 대사는 이날 회담에서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 및 이스라엘 혁신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도내 벤처산업의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송 지사는 “전북도는 세계적인 기초 과학 연구기관인 와이즈만 연구소의 기술이전 여건 확보 및 벤처창업 지원 등을 통해 도내 벤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적 금융시장 생성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특히,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 모델과 미래상용차, 스마트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친환경 중심의 전북 현안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재생에너지 및 식품·바이오 기업의 도내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도록 지

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호센 대사는 이에 대해 “한국과 이스라엘은 공통점이 많고 특히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산업과 새만금에 이스라엘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교류협력으로 상생발전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세계 각국의 대학을 자주 방문하고 있는 호센 대사는 이날도 전북도청 방문에 앞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를 찾아 김동원 총장과 면담하며 학술교류 방안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오후에는 군산으로 이동해 새만금 개발청 박종민 교류협력과장의 안내에 따라 새만금 33센터 및 새만금 개발현장 등을 둘러봤다. /김진성 기자

‘목표는 그린수소 생산 1위’... 도, 수소산업 육성계획 발표

전북도가 정부의 수소분야 전력투자에 발 맞춰 국내 최고수준의 수소융합산업 거점지역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국내 그린수소 생산 1위 달성’을 목표로 연간 7만톤이 그린수소 생산,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8000여명의 고용유발을 가져온다는 계획

이다. 28일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등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산업 발전의 촉매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분석과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4대 추진전략, 27개 세부과제를 담은 전북도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올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전북 수소산업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육성 계획을 준비해왔다. 도는 밝힌 4대 추진전략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수소 상용 가속화 투자 ▲도내 전력산업

분야와 연계한 수소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수소 이용 및 보급 활성화를 통한 수소경제 사회 진입 가속화 ▲전북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안전성 확보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전북도는 전략과 과제를 통해 그린수소 연간 7만톤(2030년) 생산으로 수소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수소차 35만대 이상의 운행이 가능한 양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 선미촌 문화재생 글로벌 우수사례 ‘주목’

동아시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회의

모범사례 공유·활동 강화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김승수 시장, 첫마중길 등 도시재생 사례 발표

2019 동아시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회의가 28일 개막, 오는 30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등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주시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이번 회의는 12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유네스코 본부 및 지역사무소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이 정한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과 국가위원회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첫날 사례발표와 라운드세션 등을 통해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전주 첫마중길, 서화예술마을, 팔복예술공장 등 그간 추진해온 다양한 도시재생 사례를 발표했다. 김 시장은 “전주시 선미촌에서 성매매집결지를 여성인권과 문화예술마을로 만드는 문화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사업은 최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공적 프로젝트 인증사업에 선정됐으며 도심재생의 성공사례로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이 가진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유네스코 국제인증을 위한 국제성 공모에도 적극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 동아시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개최식이 28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전주시에 감사 인사와 함께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문화재청 공동 주최로, 무형유산 교육 강화를 위한 아태지역 회의와 합동으로 진행돼 더욱 폭넓은 국제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29일에는 합동 연구 주제 발표 및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회의 중간에는 인근 서화예술마을을 찾아 전주시 SDGs 사례를 견학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완산학원 임시이사 선임 결정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통해 완산학원 임시이사 선임을 결정했다. 학교법인 완산학원 이사 정수 8명의 2배수인 16명을 추천했다. 그 중 8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선임된 임시이사는 9월 9일 까지 친원회를 실시한 후 9월 11일 임시이사로 선임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계 4명, 법조계 1명, 기타 3명 등 총 8명이다. 사분위는 9월 중 임시이사 간담회를 실시해 학교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매일 INDEX

5면 -전북대, 이스라엘 대사 초청 교류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전북뉴스

JJC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